

# 근대중국어 ‘着(著)’ 文法化에 관한 연구\*

- 『世說新語』, 『祖堂集』을 중심으로 -

林永澤\*\*

## 目 录

- I. 서론
- II. ‘着’ 관련 기존 논의
- III. 문법범주 판별기준
- IV. 위진남북조시기 문헌 고찰
- V. 『祖堂集』고찰
- VI. 결론

## I. 서론

‘着’은 현대중국어에서 動態助詞로 빈번히 사용되어 동작의 진행 혹은 상태의 지속을 표시한다. 그러나 이는 본래 動詞로 쓰였던 ‘着’이 近代中國語시기에 역사적 변화를 겪으며 助詞로 文法化된 이후의 산물이며, 先秦시기부터 사용된 동사용법은 줄곧 매우 활발한 출현빈도를 보이면서 현대에 이르러서도 본래의 용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즉 ‘着’은 몇 가지 문법범주에 동시에 속는 대표적 다품사어(兼類詞)라 할 수 있다.

‘着’ 문법화에 관한 기존 중국학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순수동사 ‘着’은 최초 어떤 하나의 동사 후면에 위치하여 ‘V+着’ 竝列구조 혹은 連動구조를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327-2009-1-A00507).

\*\* 서울신학대학교 중국어과 부교수

형성하였으며, 이후 ‘V+着’ 述補구조의 結果補語를 거쳐 完了相을 표시하는 助詞로 문법화되었고, 이후 동작의 진행 혹은 상태의 지속을 표시하는 성분으로까지 변하게 되었다. 이것이 ‘着’의 일반적인 문법화 과정이지만, 또 하나의 문법화 경로로서 ‘着’의 前置詞용법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학자들이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데<sup>1)</sup>, 上古시기 순수동사로만 쓰이던 ‘着’이 魏晉南北朝시기부터 서서히 문법화되어 동작행위의 발생 장소를 표시하는 전치사용법으로 사용되며, 唐代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출현빈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대개의 근대 중국어 문법서와 논문들이 모두 이러한 관점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 장소 뿐만 아니라 시간, 도구 등을 표시하는 조사용법으로까지 다양한 논의를 전개해 왔다. 上古시기의 순수동사 ‘着’이 위진남북조시기부터 서서히 문법화가 시작되어 장소 표시 전치사용법으로까지 변화한다고 보는 것인데, 이들이 주장하는 ‘着’ 전치사용법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이후 唐宋시기에 이르러서는 ‘着’의 문법화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여러 문헌에서의 출현빈도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시기의 문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실제로는 순수동사용법이 아직 활발히 살아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따라서 ‘着’의 전치사용법을 수용하는 데에는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는 조사와 분석이 재삼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唐末 五代의 중요 口語 자료인 『祖堂集』에는 이러한 전치사 ‘着’이 다수 출현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祖堂集』은 唐五代시기의 대표적인 불교 禪宗語錄으로서 당시의 口語를 생생히 보여주는 귀중한 문헌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문헌은 약 18만여 자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서 近代中國語시기를 대표하는 여러 문법범주의 변화양상을 거의 대부분 보여주는 언어자료이다. ‘着’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는 마

1) 太田辰夫(1958), 梅祖麟(1988), 蔣紹愚(1994), 曹廣順(1995), 馬貝加(2002), 張楨(2002), 林新年(2006) 등.

‘着’ 前置詞용법에 관한 이들의 견해는 林永澤, 「齊民要術 ‘著’ 小考」, 『中國學研究』, 제46집(中國學研究會, 2008)과 林永澤, 「搜神記를 통해 본 ‘着’의 類似前置詞용법」, 『中國研究』, 제46집(中國研究所, 2009)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침 시기적으로 動詞에서 助詞로까지 변화하는 '着'의 중요한 변화과정을 모두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祖堂集』시기는 '着' 문법화 변이과정 중 전형적인 層位化(Layering)현상<sup>2)</sup>을 보여주는 과도기적 단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우선 『世說新語』와 『祖堂集』에 출현하는 '着' 관련 통사구조를 모두 추출하고, 이에 대한 全數調査를 통하여 唐五代시기 '着'에 관한 의미적, 통사적 고찰을 시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술보구조 내에서 결과보어로 사용된 '着'의 특징들뿐 아니라 이후 동태조사로 문법화된 '着'의 어휘적, 문법적 특징에 관해서도 관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통시적 고찰의 필요에 따라 中古중국어 시기의 중요 口語자료인 『齊民要術』, 『搜神記』와도 비교해보고, 특히 전치사 용법의 존재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또한 기존 학자들의 논의에 대한 再考를 통해 '着'의 多重的 文法範疇 특성과 기능에 관해서도 묘사해보며, 중고와 근대를 관통하는 수 세기 동안 '着'이 동사에서 조사로 변화하는 변천과정과 기제를 세밀히 관찰하여 기존 연구가 주장하는 前置詞 '着'이 단순한 품사 확정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관점의 전반적인 오류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음을 밝혀 보고자 한다.

특히 중국어 통사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竝列構造→連動構造→述補構造→動態助詞로의 文法化에 대한 연구를 '着'구조를 통하여 시행해보며, 이의 구체적인 변화기제와 변천과정에 대해 연구하려 한다.

## II. '着' 관련 기존 논의

'着'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王力の 『漢語史稿』(1958)를 시작으로 이후 太田辰夫의 『中國語歷史文法』, 呂叔湘의 『釋景德傳燈錄中'在'、'着'

2) Paul Hopper(1991)가 제시한 문법화 원리. 언어 변화에서 옛 층위와 새 층위가 공존하는 현상. 여러 가지 어원에서 출발하여 문법화한 문법소들이 공시적으로 어떤 특정한 기능범주를 이루면서 공존함. 이성하, 『문법화의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1998, 173~178쪽 참조.

二助詞』, 梅祖麟의 『現代方言里虛詞‘著’字三種用法的來源』과 『在漢語方言裏虛詞‘着’字三種用法的來源』, 劉堅·江藍生·白維國·曹廣順의 『近代漢語虛詞研究』, 曹廣順의 『祖堂集中的‘底(地)’、‘卻(了)’、‘著’』와 『近代漢語助詞』, 蔣紹愚의 『近代漢語研究概要』와 『近代漢語語法史研究綜述』, 그리고 吳福祥의 『敦煌變文語法研究』와 『關於語法化的單向性問題』, 李訥·石毓智의 『論漢語體標記誕生的機制』, 孫朝奮의 『再論助詞‘着’的來源及其用法』, 馬貝加的 『近代漢語介詞』, 張楨의 『漢語介詞詞組詞序的歷史演變』, 林新年的 『祖堂集的動態助詞研究』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着’은 본래 동사로서 ‘어떤 사물에 접촉하거나 부착하다’의 의미였다.<sup>3)</sup> 王力선생이 말한 바대로 ‘着’은 漢末에 이미 文法化의 징조를 보이는데, 그것은 文中에서 단독 술어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사 뒤에 놓여 그 동사와 使成式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sup>4)</sup> 예를 들면,

今鐘鼓無所懸著……如必有所懸著……(論衡·雷虛篇)

지금 종과 북이 공중에 의지해 걸 것이 없어지고……만일 반드시 의지할 것이 있어야 공중에 걸 수 있다면……

그에 따르면, ‘着’은 南北朝 이후 본격적으로 문법화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은 ‘在’의 의미가 상당히 있고, 어떤 것은 ‘到’의 의미를 담고 있으나, “但它是連上念的, 不是連下念的”라고 주장하며 전치사로 판단할 수 없음을 시사하였고, 다만 結果補語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나의 동사에 ‘着’을 더하면 使成式과 유사한 구조가 되며, 그런 연후에 다시 동태조사(形尾)로 발전하여 동작 진행의 상태를 표시한다”고 했다.<sup>5)</sup>

이는 ‘着’의 변천과정을 설명해주는 것인데, 動態助詞 ‘着’이 이렇게 순수동사에서 동태조사로까지 문법화되어 가는 변화과정에 대한 논의는 현재 학계에서 큰 이견이 없다. 아래 예들은 ‘着’ 통사구조 분석과 관련한 논의에서 항

3) 風行而著於土。(左傳·莊公二十二年)  
바람이 운행하여 사물을 땅에 떨어뜨린다.

4) 王力, 『漢語史稿』(修訂本), 中華書局, (1958/1980), 306-307쪽.

5) 上同.

상 출현하는 대표적인 예들이며, 魏晉南北朝부터 唐代에 이르는 '着' 문법화의 개략적 상황을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예들이다.

長文尙小, 載著車中; 文若亦小, 坐著膝前.(世說新語·德行)

長文은 아직 어리니 차 안에 태우고; 文若도 또한 어리니 무릎 앞에 앉혔다.

以綿纏女身, 縛著馬上, 夜自送女出與術.(『三國志·魏志·呂布傳』注)

천으로 여인을 둘둘 감아 말 위에 묶고, 밤에 몰래 術에게 보냈다.

銜泥點汗琴書內, 更接飛蟲打著人.(杜甫·絕句漫興之三)

흙을 물어 와 거문고와 책 안을 더럽히니, 다시 날벌레 잡는다고 사람을 다그친다.

日暮拂雲堆下過, 馬前逢著射雕人.(杜牧·遊邊)

빛나던 태양 뺨뺨한 구름 아래로 기울고, 말 타며 독수리 잡는 사냥군을 만난다.

余時把著手子, 忍心不得.(張鷟·游仙窟)

내가 그 때 그녀의 손을 잡으니 한 없이 마음이 아팠다.

藏著君來憂性命, 送君又道滅一門.(捉季布傳文一卷·敦煌變文集)

그대를 머물게 하니 생명을 염려하고, 그대를 보내자니 또한 가문이 훼손될까 한다.

예 2), 3)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在'로 해석하고 있고, 예 4), 5)는 '到'로 해석하지만 사실은 모두 '附着'의 의미를 여전히 담고 있는 結果補語로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예 6), 7)은 단지 모종의 동작행위 완성 후의 지속 상태를 표시하며, 따라서 진행·지속 표현의 動態助詞이다. 뒷장에서 논하겠지만, 특히 예 2), 3)의 경우 'V+着+N+L'<sup>6)</sup>구조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대중국어로 해석할 경우 '着'을 '在'로 해석하게 될 충분한 개연성을 제공하지만, 당시 언어의 공시적 특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전치사로만 해석해야 할 어떠한 당위성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본고의 논의 전개를 위해서는 '着' 관련 기존 연구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前述한 바처럼 太田辰夫(1958), 梅祖麟(1988), 蔣紹愚(1994), 曹廣順(1995), 李訥, 石毓智(1997), 馬貝加(2002), 張頴(2002), 林新年(2006)

6) 본문은 서술의 편의를 위해 몇 가지 문법술어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기로 한다.  
V(verb):동사, N(noun):장소명사, L(locality):方位詞, P(preposition):전치사, C(complement):보어.

등 ‘着’의 전치사용법을 인정하는 이들의 관점은 「齊民要術 ‘著’ 小考」와 「搜神記를 통해 본 ‘着’의 類似前置詞용법」<sup>7)</sup>을 통해 자세히 고찰한 바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재차 나열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본고 논지의 초점은 『祖堂集』시기 ‘着’ 문법화과정의 특징과 더불어 전치사 ‘着’의 존재 여부에 맞추어져 있다. 특히 唐詩 등에 활발히 출현했던 전치사 ‘着’이라면 唐末五代에는 더욱 높은 출현빈도가 예상되며, 의외로 唐 이후 전치사 ‘着’이 소멸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祖堂集』에는 최소한 여러 흔적이라도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본고의 논의 전개를 위해 ‘着’의 전치사용법을 인정하는 대표적 학자인 蔣紹愚와 曹廣順의 견해만을 간략히 소개해 보기로 한다.

蔣紹愚(1994)는 ‘着’이 동사에서 조사로 변화하는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前面 동사의 어휘의미적 성질이 ‘着’ 변화의 기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다. 그는 ‘着’ 전면 동사의 의미적 특성에 주목하여 크게 ‘場所 관련 동사’와 ‘場所 무관 동사’ 두 가지로 나누었다<sup>8)</sup>. 전자를 다시 ‘靜態’와 ‘動態’<sup>9)</sup> 두 가지로 나누었으며, 후자는 다시 ‘持續 가능’과 ‘持續 불가능’<sup>10)</sup>으로 나누었다. 그는 唐代를 ‘着’의 품사성질이 동사에서 조사로 변화하는 기점으로 간주하고, ‘着’과 결합하는 동사가 六朝시기에는 장소 혹은 장소 관련 지속동사였다가 唐代에 이르러 장소와 무관한 지속동사로 확대된다고 했다. 이와 동시에 ‘着’ 후면의 성분 또한 장소명사로만 국한되던 것이 이후에는 장소명사뿐 아니라 일반명사 목적어로까지 모두 가능한 상황으로 발전한다고 했다. 그가 제시한 결론은 지속동사 후면의 ‘着’이 지속표현 조사의 근원이며, 장소와 무관한 비지속동사 후면의 ‘着’은 완성표현 조사로 발전한다고 한다. 또한 통사적으로는 六朝시기에 처음 출현한 ‘V+O+着’구조가 ‘V+O+了’구조에서 ‘了’의 위치이동현

7) 林永澤, 「齊民要術 ‘著’ 小考」, 「中國學研究」, 제46집, (서울:中國學研究會, 2008)  
林永澤, 「搜神記를 통해 본 ‘着’의 類似前置詞용법」, 「中國研究」, 제46집, (서울:中國研究所, 2009)

8) 蔣紹愚, 『近代漢語研究概況』, (1994), 168쪽, 北京大學出版社.

9) 靜態는 ‘坐’, ‘放’ 등이 있고, 이 때 ‘着’은 ‘在’로 해석되고, 動態는 ‘透’, ‘度’ 등이 있으며, 이 때 ‘着’은 ‘到’로 해석된다.

10) 持續가능은 ‘看’, ‘記’ 등이 있고, 非持續은 ‘探’, ‘逢’ 등이 있다.

상<sup>11)</sup>에 類推작용을 일으켜 'V+着+O'로 변화하기 시작한다고 했으며, 이 때의 '着'이 바로 前置詞에서 助詞로 문법적 성질이 변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며 '着' 전치사용법의 존재를 인정한다.

한편, 曹廣順은 『祖堂集』의 '着(地)', '却(了)', '著'』<sup>12)</sup>에서 『祖堂集』의 '着'에 관하여 이미 논술한 바 있다. 그는 一般動詞용법 이외에 『祖堂集』 중의 'V+着'용법을 A, B, C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A, B는 결과보어로 사용된 동사 '着'이며, C는 이미 동사성을 상실한 '着'이 동태조사로 허화한 예들을 제시하고 있다. '着' 전면에 결합하는 동사의 특성이 附着性 동사에서 非附着性 동사, 그리고 다시 持續可能 동사로 변화한다는 관점은 이후 蔣紹愚가 주장하는 관점의 토대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써 진행·지속 표현 조사의 탄생을 잘 예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祖堂集』의 '着'을 분석하며 전치사용법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이 없는 것이 의아스럽다. 그러나 이후 『近代漢語助詞』(1995)에서는 '着'을 크게 A, B 두 가지<sup>13)</sup> 유형으로 분류하여 발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A유형에서는 위진남북조시기를 전후하여 '着' 전면의 동사가 의미적 제한에서 풀려나게 되어 '非附着상태'의 동사들이 출현하게 되고, '着'의 문법기능도 동작행위가 사물로 하여금 이르게 한 장소를 이끌어 내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용법의 출현이 곧 '着'을 전치사로 문법화하게 만드는 기초를 제공하게 되며, 唐代에 이르러서는 한층 더 진행된 문법화 작용으로 인하여 '着'이 사물 도달의 장소를 표시하는 전치사로 완전히 전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과거 '着'연구에 대한 소개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일일이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着'의 문법화과정 중 조사로의 귀착은 크게 이견이 없기 때문이며, 다만 특이한 문법화 경로의 하나로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전치사용법의 존

11) 'V+O+了'에서 'V+了+O'로의 문법구조 변이현상. 『近代漢語研究概況』, 158-159쪽 참조.

12) 曹廣順, 『中國語文』, 1986, 第3期.

13) A형: 'V+着+O'구조에서 전면 동사는 '부착' 관련 동사, 목적어는 장소 표시 명사.  
B형: 'V+着+O'구조에서 전면 동사는 심리활동 동사, 목적어는 심리활동 관련 대상물. 동작의 지속 혹은 결과의 획득을 표시.

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논의를 출발해 보기로 한다. 즉 기존의 연구들이 확립적으로 주장하는 中古, 近代시기의 ‘着’ 전치사용법은 여러 면에서 아직 재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언어의 발전, 변화 그리고 언어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의 측면에서 볼 때, ‘동사→보어→조사’로의 문법화는 세부적인 변화요인이나 기제에 있어서만 차이를 보일 뿐 다수의 언어에서 보이는 공통된 현상이다. 그러나 언어의 특수성 측면에서 고려해 보더라도 ‘着’의 전치사용법은 재고해 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着’의 전치사용법이 존재했음을 말할 뿐, 이후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소멸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Ⅲ. 문법범주 판별기준

한 시기 언어의 통사구조를 연구하면서 연구결과의 신뢰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연구대상이 되는 문법범주를 어떻게 확정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개별적인 어휘들의 품사를 확정하고 그것이 하나의 통사구조 안에서 어떠한 문법적 특징과 기능을 갖는가를 판가름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文法標識’를 찾아내는 일이며, 이러한 형식적 근거가 확보되어야 이를 중심으로 한 전후 성분들과의 관계를 규명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법표지의 탐색은 통사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법표지를 발견해낼 수 없는 통사구조의 연구에 있어서는 하는 수 없이 자체 어휘의미나 전후 성분과의 의미적 관계를 가지고 판단의 근거로 삼는 수밖에 없다. 어휘의미의 고찰은 본래 형식표지 분석 후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어 품사 확정의 마지막 단계이자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연구분석 환경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이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祖堂集』에 출현하는 'V+着+(O)'구조 내 각 성분의 문법범주를 판별하는 기준을 정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각각의 동사 구조 내에서 '着'이 표현하는 어휘의미를 우선 고찰하였으며, 착안점은 '着'과 전면 동사와의 의미관계에 두었다. 즉 전면 동사의 의미 변화가 '着'의 품사성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동사 후면 목적어의 성질 변화에까지 이른다고 보는 것이다. 'V+着+(O)'구조 중에서 각 전면 동사들이 비록 서로 다른 구체적 의미를 갖고는 있지만 그들 간에는 공통적인 의미 또한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본고는 여기서 '着' 전면의 동사가 표시하는 의미적 특성에 근거하여 이것을 네 가지로 나누어 '着'의 문법적 성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蔣紹愚(1994)와 曹廣順(1986)의 연구방법에 착안한 것으로서 意味素 分析의 관점에 근거한 것이다. 개별 동사의 의미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다시 분류하여 네 가지 동사가 구성하는 각각의 'V+着+(O)'구조에서 어떤 동사적 변화가 관찰되는지, 'V'의 의미 변화에 따라 '着' 후면의 성분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주로 살펴보도록 한다. '모종의 사물에 부착되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는 '+부착', 동사가 본래 '지속'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지속'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두 가지 의미적 특성에 의한 조합의 결과는 모두 네 가지이며, 표기는 아래와 같다.

①[+附着, +持續] ②[+附着, -持續] ③[-附着, +持續] ④[-附着, -持續]

둘째, 'V+着'구조 후면에 수반되는 목적어 성분에 주목하기로 하며, 이 목적어가 일반적인 단독 성분인지 아니면 장소사와 방위사를 수반하여 'V' 동작행위의 발생점이나 도착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를 관찰하도록 한다. 이는 '着'이 전면의 'V'와 깊은 통사적 관계를 갖는 결과보어인지 아니면 후면의 명사성성분(장소사+방위사<sup>14</sup>)과 연관된 전치사인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판별의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4) 편의상 '장소명사+방위사'는 이하 'N+L'로 표기하기로 한다.

#### IV. 위진남북조시기 문헌 고찰

전치사 ‘着’은 위진남북조시기부터 출현한다는 것이 현재 중국어학계의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시기의 대표 언어자료인 『世說新語』, 『齊民要術』, 『搜神記』등을 연구의 시발점으로 삼아 ‘着’의 전반적인 문법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의 조사에 의하면, 남북조시기 주요 口語자료인 『世說新語』는 6만 1천 200여 자, 『齊民要術』은 10만 5천 700여 자, 그리고 『搜神記』는 5만 6천 415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着’은 각각 61 회와 364 회, 65 회의 출현빈도를 보인다.

##### 1. 『世說新語』

『世說新語』는 劉義慶(403~444)이 後漢말부터 東晉까지 名士들의 일화집을 편집한 것으로서 당시의 口語體를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다. ‘着’이 총 63회 출현하며 거의 대부분이 아직 본래의 순수동사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sup>15)</sup> 『世說新語』에서 ‘着’의 의미는 ‘穿, 命中, 顯現, 用, 放, 置, 戴, 佩帶, 寫作, 施, 附着’ 등으로 쓰이고 있으며, 가장 출현빈도가 높은 구조는 목적어를 수반하는 ‘着+O’로서 총 37회 출현한다.

袁紹年少時, 曾遣人以劍擲魏武, 少下, 不着。(假譎5)

袁紹가 젊었을 때, 사람을 보내어 밤에 칼을 魏武帝(曹丕)에게 던지게 했는데, 약간 낮아서 명중시키지 못했다.

太傅時年七八歲, 着青布袴, 在兄膝邊坐, 諫曰:(德行33)

太傅 謝安은 그때 아직 7~8세로서 파란바지를 입고 형의 무릎 옆에 앉아 있다가 형에게 간하여 말했다.

“今見鬼者云, 着生時衣服, 若人死有鬼, 衣服復有鬼邪?”(方正22)

15) 형용사용법은 총 3회 출현함. 桓公曰: “精神淵著。”(賞譽48) (桓公은 말했다: “그 정신은 깊고 현저하다.”)

“이제 유령을 본 사람은 生時의 의복을 입고 있었다고 했는데 만약 사람이 죽더라도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의복에도 역시 영혼이 있다는 말인가?”

“吾所以積年不告汝者，王氏門強，汝兄弟尚幼，不欲使此聲著，蓋以避禍耳！”(仇隙3)

“내가 오랜 세월동안 너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이유는 왕씨가문은 강성하고 너희 형제는 아직 어리기에 그 소문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자 했으니 대개 화를 피하기 위함일 따름이었다.”

客至，屏當未盡，余兩小簾，着背后，傾身障之，意未能平。(雅量15)

손님이 찾아왔으므로 재물을 넣어두려고 했으나 넣어두지를 못하였고 나머지 작은 상자 두 개를 등 뒤에 밀어놓자 몸을 비스듬히 눕었는데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모습이였다.

桓宣武平蜀，以李勢妹爲妾，甚有寵，常着齋后。(賢媛21)

桓宣武(桓溫)는 촉 땅을 평정한 다음 李勢의 누이동생을 첩으로 맞아들이고 매우 총애하여 언제나 서재 뒷방에 있도록 하였다.

예 8)은 단독동사로 사용된 ‘着’을 보여주며, 예 9), 10)은 일반명사 목적어를 수반하는 ‘着+O’구조이다. 예 11)은 겹어문의 제2동사로 사용된 ‘着’으로서 마찬가지로 일반동사용법이다. 예 12), 13)의 경우 ‘着’ 후면에 장소명사와 방위사가 결합되는 구조이지만, ‘着’ 전면에 또다른 동사가 출현하지 않으므로 이때의 ‘着’은 순수한 동사용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장소명사+방위사’가 나타내는 일정한 공간에 ‘놓다, 두다’의 의미를 표현하며, 총 4회 출현한다.

明帝聞之，寔面着床曰：(尤悔7)

명제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을 어좌에 파묻은 채 말했다.

王衛軍云：“酒正引人着胜地。”(任誕48)

王衛軍(王薈)이 말했다. “술은 실로 사람을 佳境으로 유인해 준다.”

庾文康亡，何揚州臨葬，云：“埋玉樹着土中，使人情何能已已！”(傷逝9)

庾文康(庾亮)이 죽었을 때 何揚州(何充)는 장례식에 참가하여 말했다. “玉樹를 흙속에 묻고 말다니 인간의 정으로 어찌 견딜 수 있겠는가?”

常自帶絳綿着繩腰中，玄問：“用此何爲？”(規箴25)

언제나 빨간색의 비단끈을 허리에 차고 다녔다. 환현이 물었다. “그것은 어디에 쓰기 위한 것인가?”

예 14), 15)의 'V+O+ 着+N'이나 예 16) 'V+O+ 着+N+L'은 통사구조상 '着'이 마치 장소명사 'N'과 결합된 전치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V+O'와 '着+N(L)'이 결합된 連謂構造이다. 남북조시기는 술보구조 탄생 초기에 해당하므로 'V+O+ 着+N'구조를 술보구조 'V+ 着+N'에 목적어 'O'가 개입된 형태로 볼 수는 없다. 이 시기 'V+ 着'와 'V+O+ 着+N'은 전혀 별개의 통사구조로 인식해야 하며, 전자는 결과보어 '着'이 'V'와 긴밀히 결합한 형태이고, 후자는 'V+O' 동사구와 '着+N' 동사구가 나란히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이다. 흔히 'V+O+ 着+N'구조를 'N에서 O를 V하다'로 해석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안이한 풀이로서 당시 '着'의 통사적·의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전면 동사구의 의미는 '土中'에서 '埋玉樹'를 한 것이 아니라, '埋玉樹' 동작행위가 일어난 후 '土中'에 '부착, 고착'이라는 제 2의 동작이 연속해서 일어난 것이므로 連謂구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예 17)은 'V+O<sub>1</sub>+ 着+O<sub>2</sub>+N+L'의 특이한 구조인데, 이 때 '着'이 통사구조상 전면 동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후면의 'O<sub>2</sub>+N+L'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帶絳綿' 동작이 먼저 일어나고, '腰中'에 '着繩'한 것이기 때문이며, 예 17)은 예 16)을 連謂구조로 파악해야만 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世說新語』에는 술보구조에서 결과보어로 사용된 '着'을 총 10회 볼 수 있다. 'V+ 着' 1회, 'V+ 着+N' 1회, 'V+ 着+N+L' 8회이다. 결과보어 '着'은 동사로서 전면의 동사와 긴밀히 결합하여 술보구조를 형성한다. 의미는 모두 전면 동사 동작행위 발생 이후의 '완료'나 '고착', '부착'상태를 표현한다. 이는 상고시기 'V+ 着'를 계승한 통사구조이며, 연동구조에서 일정 정도 문법화가 진행되어 술보구조로 변화된 것이다. 남북조에 이르러 사용빈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문법화도 가속된 'V+ 着'구조는 '着' 후면에 장소 표시 명사가 오게 되면서 'V+ 着+N'구조를 형성하고, 이때 '着'은 마치 '在'나 '到'의 의미를 가진 전치사처럼 보이지만, 'V+ 着'에서 후면에 단순히 장소명사가 위치한다고 해서 '着'을 갑자기 전치사로 간주하는 것은 문법 변화시스템의 완만성을 무시한

성급한 판단이라 볼 수 있다. 동사 '着'이 후면의 장소명사와 결합하여 새로운 통사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V+着+N'구조의 출현빈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기존 통사구조를 탈피한 새로운 재분석<sup>16)</sup>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기존의 'V着+N'이 'V+着N'으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래 예 19)의 경우, '瀉+着梁柱間地'로 분석하기 보다는 '瀉着+梁柱間地'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瀉'라는 동작이 '梁柱間地'에서 발생하고 '着'은 단지 '瀉'동작 발생 이후의 완료, 고착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謝曰：“故当渊注滄著，納而不流。”(言語77)

사중량은 말했다. “그렇다면 물이 흘러들어 잔뜩 가두고 있을 뿐 흘러나가지는 않겠구나.”

有人詣之，索美酒，得，便自起，瀉着梁柱間地，祝曰：(規箴17)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좋은 술을 달라고 청하였다. 술을 받자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 대들보와 기둥 사이에 (술을) 붓고 祝禱했다.

既至，荀使叔慈應門，慈明行酒，余六龍下食，文若亦小，坐着膝前。(德行6)

도착하자 荀叔은 叔慈(荀靖)로 하여금 대문에서 그들을 맞아들이게 하고 慈明(荀爽)으로 하여금 술을 따라 권하게 하고, 그 밖의 六龍에게는 음식을 내오게 하였다. 손자인 文若(荀彧)은 아직 어렸으므로 무릎에 앉혔다.

陳太丘詣荀朗陵，貧儉无仆役，乃使元方將車，季方持杖后從，長文尚小，載着車中。(德行6)

陳太丘가 荀朗陵을 방문하러 갈 때, 가난하여 奴僕이 없었다. 그래서 장남인 元方(陳紀)으로 하여금 수레를 몰게 하고, 동생 季方(陳謏)으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뒤따르게 하였다. 손자인 長文(陳群)은 아직 어렸으므로 수레에 태웠다.

예 20), 21)는 '着' 전치사용법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바로 그 예들이다. 대부분의 중국 문법학자들이 전치사 '着'의 탄생을 논할 때 제시하는 예로서 이전의 'V+着+N'에서 장소명사 후면에 방위사가 결합되는 구조인데, '前'과 '中' 방위사의 출현으로 인해 동작 발생의 구체적인 장소가 더욱 명확해질 뿐, 이를 'V'와 '전치사+장소명사+방위사'가 결합된 구조로 보는 것은 당시의 전반적인 문법적 특징을 고려할 때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본다.

16) 재분석(重新分析): 하나의 통사구조에서 기존의 경계가 재해석되어 이전의 구조가 새로운 구조로 발전되는 것.

既還, 藍田愛念文度, 雖長大, 猶抱<sup>着</sup>膝上。(方正58)

집에 돌아오니, 왕남전은 왕문도를 무척 사랑하는 터라 비록 成人이 되었건만 아직도 무릎에 앉히는 것이었다.

嘗使一婢, 不稱旨。將撻之, 方自陳說, 玄怒, 使人曳<sup>着</sup>泥中。(文學3)

어느 때 여종에게 일을 시켰던바 뜻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회초리로 때리려고 했더니 여종이 변명을 했다. 정현은 화가 나서 그녀를 泥中에서 끌고 다니도록 명했다.

王君夫嘗責一人无服余袒, 因直內<sup>着</sup>曲閣重闈里, 不令人將出。(汰侈7)

王君夫(王愷)가 어느 때 속옷을 입지 않은 어떤 사람을 벌주면서 그 사람을 아주 깊은 내실 속에 집어넣고는 풀어주지 말라고 했다.

既還, 婢擎金澡盤盛水, 琉璃碗盛澡豆, 因倒<sup>着</sup>水中而飲之, 謂是干飯。(糞漏1)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시녀가 황금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 들고 있었고, 유리 주발에는 澡頭를 담아 놓았다. 그 조두를 물속에 부어서 마셨는데, 왕돈은 그것을 말린 밥이라고 생각했다.

王獨在輿上回轉, 顧望左右移時不至, 然后令送<sup>着</sup>門外, 怡然不屑。(簡傲17)

왕자경은 輿 위에서 홀로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윽고 고벽강은 왕자경을 문밖으로 내쫓았는데 왕자경은 흔쾌히 즐거워하며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王有不平色, 語信云: “可擲<sup>着</sup>門外。”(方正62)

왕자경은 불만스런 얼굴로 使者에게 고했다. “문밖에 버리시오!”

예 22)~27)이 현재 다수의 학자들이 ‘着’ 전치사용법의 전형으로 얘기하는 ‘V+ 着+N+L’구조이다. 여기서 ‘着’은 ‘在’나 ‘到’와 의미상, 용법상 매우 유사해 보이며 해석에 있어서도 전치사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유려해 보인다. 또 이 ‘V+ 着+N+L’은 ‘V+ 着+N’구조에 방위사 ‘L’이 결합된 것으로서 ‘L’은 전면 동사의 동작행위가 미치는 도착점의 공간성을 한층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상기 ‘着’ 전면의 동사들은 동작행위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부착’, ‘지속’의미를 갖는 것(滯, 坐, 載, 抱)과 ‘부착’의미는 없으나 동작 완료 후 ‘지속’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것(放), 그리고 ‘부착’과 ‘지속’의미가 모두 없는 것(瀉, 送, 擲, 曳, 倒)으로 나뉜다. 이 세 가지 어휘가 갖는 의미특성에 따라 ‘着’ 본연의 품사성질을 결정하는 근거로 삼는데, 대부분 ‘+ 부착, + 지속’동사와 결합하는 ‘着’은 전치사 ‘在’로, ‘-부착, + 지속’, ‘-부착, -지속’동사와 결합하는

‘着’은 전치사 ‘到’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는 해당 ‘V’와 ‘着+N+L’을 결합시켜 해석할 때 지나치게 편의적 관점으로 풀이하고 있을 뿐, 당시의 문법체계와 ‘着’의 문법화 변화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라 볼 수 있다.

예 22)를 예로 들면, ‘抱着膝上’은 ‘무릎 위에서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에서 안고 있는’ 동작행위의 ‘완성’, ‘고착’의 의미를 ‘着’이 결과보어로서 강화시켜 주고 있는 것이며, ‘膝’은 동작행위 발생의 장소, 그리고 ‘上’은 방위사로서 그것의 공간성을 더욱 공고히 밝혀주는 성분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王力(1958)선생의 통찰처럼 “‘着’이 前面동사와만 관련을 맺으므로 끊어읽기에 주의해야 하며, ‘場所名詞+方位詞’는 전면의 ‘V+着’과 별도로 문법적 관계를 갖지 않는다”<sup>17)</sup>고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한 분석이라 하겠다. ‘V+着+N+L’에서 ‘着’은 다만 전면의 동사와만 의미적, 통사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후면의 ‘N+L’과는 통사적으로 무관하므로, ‘着’은 결과보어에서 동태조사로 직접 虛化되었을 뿐 전치사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예 23)은 문장 전체가 사역동사를 동반한 兼語文으로서 사역문과 잘 결합되는 결과보어식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人’ 뒤의 VP는 결과보어식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 때의 ‘着’은 動詞補語라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예 24)의 ‘內’는 ‘放’ 의미의 동사이며, ‘曲閣重闈’가 N, ‘里’는 L로 사용되었다. 즉, ‘內+着曲閣重闈里’의 구조가 아니라, ‘內着+曲閣重闈里’로 보아야 한다. ‘아주 깊숙한 내실 속에’ 가두어 버린것이지, ‘내실 속에서’ 혹은 ‘내실 속으로’ 가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사구조 본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문맥 해석 위주의 관점을 갖는 것은 문법분석에 있어 지양해야 할 점이다.

『世說新語』에 출현하는 ‘着’구조를 모두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17) 王力, 『漢語史稿』, (北京:中華書局, 1980): “這種‘著’字頗有‘在’字的意義(附着某處就是在於某處), 但是它是連上唸的, 不是連下唸的, 所以和‘在’不同。”

	구 조	출현횟수	의미	비 고
1. 순수동사용법	着 (4) 使+O+着 (1) 着+O (37) 着+N+L (4) V+O+着+N (2) V+O+着+N+L (2)	50(79.37%)	穿, 命中, 顯現, 用, 放, 置, 戴, 佩帶, 寫作, 施, 附着	O:목적어 N:장소명사
2. 술보구조용법	V+着 (1) V+着+N (1) V+着+N+L (8)	10(15.87%)		
3. 형용사용법	著 (3)	3(4.76%)	顯著	
합계		63(100%)		

## 2. 『齊民要術』

『齊民要術』에서도 ‘着’은 각각 형용사로 사용된 예와 명사형태소로 사용된 예가 少數 발견될뿐, 대부분 순수동사용법이거나 결과보어로 사용된 동사용법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북조시기에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장소표시 전치사용법의 ‘着’은 발견할 수 없다. 이미 「齊民要術 ‘著’ 小考」<sup>18)</sup>를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므로 편폭의 제한으로 인해 여기서는 각 용법별로 실례를 간단히 예시해 보기로 한다.

	구 조	출현횟수	비 고	결합 동사
1. 순수동사 용법 (283)	着	20(5.5%)		
	着+N	124(34.06%)	일반목적어 114 장소표시 목적어 10	
	着+L	10(2.75%)		
	着+N+L	93(25.55%)		

18) 林永澤, 「中國學研究」, (서울:中國學研究會, 2008), 제46집.



	着+N+于+L	1(0.27%)		
	着+N+于+N+L	3(0.83%)		
	V+O+着+L	2(0.55%)		
	V+O+着+N+L	30(8.24%)	장소관련 靜態동사	合, 貯, 豎, 埋, 積, 盛, 縣2, 縛, 內3
			장소관련 動態동사	推2, 招, 取6, 瀉3, 擲, 下, 量, 傾, 挹, 抒
2. 술보구조 용법 (79)	V+着	2(0.55%)		
	V+着+N	8(2.2%)	일반목적어 1 장소표시목적어 7	
	V+着+N+L	69(18.96%)	+附着 +持續	內10, 懸2, 挂2, 合3, 埋2, 盛2, 抑3, 釘2, 插, 泥, 覆, 封, 委, 沈, 裹, 入, 次, 把, 昇, 并
			-附着 +持續	截, 泻12, 澆5, 散2, 下4, 出2, 擲2, 漱, 傾, 还
3. 기타 용법 (2)	명사형태소	1(0.27%)		
	형용사	1(0.27%)		

### 3. 『搜神記』

『搜神記』의 '着' 관련 용법도 「搜神記를 통해 본 '着'의 類似前置詞용법」<sup>19)</sup>에서 이미 실시한 바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아래 표로 대신하도록 한다.

	구 조	출현횟수	비 고	결합 동사
1. 순수동사 용법 (49)	着 (4)	6.15%		
	着+N (32)	49.23%	일반목적어 30 장소표시목적어 2	
	着+N+L (7)	10.77%		

19) 林永澤, 「中國研究」, (中國研究所, 2009), 제46집.

	V+O+着+N (2)	3.08%		
	V+O+着+N+L (4)	6.15%	장소관련 동사 非장소관련 동사	安 書, 張, 銜
2. 술보구조 용법 (12)	V+着+N (6)	9.23%		
	V+着+N+L (6)	9.23%	+附着 +持續	繫, 負
			-附着 +持續	散, 出, 布
		-附着 -持續	排	
3. 기타 용법 (4)	명사형태소 (2)	3.08%		
	형용사 (2)	3.08%		

## V. 『祖堂集』 고찰

『祖堂集』은 唐末 五代시기 즉 기원 10세기 경의 구어체 언어를 대표하며, 총 18만 8천여 자로 구성되어 있다. ‘着’은 모두 240 회 출현하는데<sup>20)</sup>, 단독 동사용법이 총 112 회이며, 人名 중의 명사형태소가 5 회<sup>21)</sup>, 병렬구조 중의 후면 동사로 쓰인 예가 7 회, 결과보어로 사용된 동사가 19 개로서 26 회 출현하고, 동태조사 용법이 총 36 개로 74 회 출현하며, 語氣助詞용법이 모두 16 회에 이른다.

문장 중 단독 술어로 사용된 일반동사 ‘着’, 결과보어로 사용된 동사 ‘着’, 그리고 진행·지속 표현의 동태조사 ‘着’이 『祖堂集』 안에 모두 용례로 나타

20) ‘著’는 唐 이후에 字形이 변화되어 ‘着’으로 사용되었다. 『祖堂集』에는 ‘着’과 ‘著’가 공히 사용되었는데, 본고에서는 두 가지 예를 모두 추출하여 분석하였으며, 표기는 ‘着’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21) 曰舉: “無着和尚到五臺山, 見文殊化寺, 共喫茶次.”(212上)  
師學: “曹山代無着曰: 久承大師按劔, 何得賺在一塵?”(215上)

는데, 이는 남북조시기부터 문법화가 시작된 '着'이 唐末에 이르러 동태조 사로의 변화가 일어나 일상언어에서 활발히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祖堂集』에서는 소수의 어기조사 '着'<sup>22)</sup>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동사 뒤에 긴밀히 결합하거나 어떤 祈願文 뒤에 놓여 '祈使, 命令, 強調, 催促, 請求' 등의 어기를 나타낸다.<sup>23)</sup> 어기조사는 총 16 회 출현하는데, 거의 대부분 문말에 사용되며 어떤 것은 술보구조 뒤에 위치하기도 한다.

### 1. 一般動詞 용법

본고에서 일반동사용법이라 함은 문장 중 단독 술어로 사용되었거나 'V+着' 並列(連動)구조 중후면 동사의 용법을 말한다. 아래 예들은 단독 술어나 'V+着'구조 중의 '着'을 보여 준다. 의미는 모두 '입다', '착용하다', '집착하다', '달라붙다', '잡다' 등등 다양하게 출현하지만 모두 '附着'의 의미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전시기 문헌인 『世說新語』, 『齊民要術』, 『搜神記』의 '놓다', '넣다', '붙다', '신다', '적중하다', '저술하다'에 나오는 의미들도 대부분 출현하고 있다. 上古시기부터 사용된 '着'의 이러한 순수동사 용법은 현대중국어에서도 아직 그대로 계승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반동사용법은 『祖堂集』에 이르러 112 회나 출현하며 전체 '着' 출현빈도의 50%에 육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목적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일반명사 목적어이며, 장소를 표시하는 목적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着' 본래의 의미와 용법으로서 문법화의 정도가 가장 낮은 상태이며, 다양한 의미 표현으로 인한 문법화의 가

22) 呂叔湘은 『釋景德傳燈錄中'在', '著'二助詞』에서 “‘着’有用在句末‘助全句之語氣者, 他說如欲以一語通概‘着’字之語氣, 可曰宣達發言者之意志, 而尤以加諸彼方, 以影響其行爲爲其主要作用。”이라 했다. 이는 '着'이 語氣助詞로 쓰였으며, '祈使'와 '命令'의 語氣를 나타낸다고 한다.

23) 師云: “吐却着.”(147下)  
 僧云: “未委按劍時還存也無?” 師云: “拽出着.”(253上)  
 問: “三界競起時如何?” 師云: “坐却着.”(137下)  
 問: “一物不將來, 爲什麼却言放下着?”(111下)

능성을 풍부히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与摩則正好着力。”(128下)<sup>24)</sup>

그렇다면 힘을 바짝 써야 되겠군요.

“好着个無相佛。”(365下)

무상불에게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不着佛求。”(60上)

부처를 구하는 일에 집착하지 말라.

有一日, 親母下世, 着麻未抛。(70上)

어느날, 어머니가 별세하여 상복을 입고서도 누이를 버리지 못하니.

既無所住着, 何論賺所、階位?(116上)

이미 집착한 바가 없거늘, 어찌 처소와 계급을 말하랴?

作摩達摩特來爲汝諸人貪着三乘五性教義。(350上)

달마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대들 모두가 삼승과 오성의 교리를 탐내고 집착하기 때문이다.

僧云: “与摩則學人無着身賺。”(324上)

그러면 학인의 몸을 둘 곳은 없겠습니까?

師云: “蠅螟眼裏着不滿。”(360上)

초명의 눈에다 넣어도 차지 않는 것이니라.

“何故月輪相下着三獸? 又月輪相中心着牛字對之耶?”(371下)

어찌 달 바퀴 모습 밑에다 세 짐승을 붙였으며, 달 바퀴 복판에다 牛자를 붙여서 대하는가?

## 2. 述補構造 중의 ‘着’

술보구조 중에 출현하는 ‘着’은 기존 학계가 말하는 ‘着’ 전치사용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들이라 할 수 있다. 이 구조 내에서 ‘着’의 품사성질은 동사이며 술보구조 내에서 結果補語로 사용된 용법이다. 이는 단독 술어로 사용된 일반동사용법과는 구별되는 구조이며, 이러한 확정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는 ‘着’ 전치사용법<sup>25)</sup>에 대한 본고의 견해가 될 것이다.

24) 괄호 숫자는 ‘《祖堂集》(影印本), 上海古籍出版社, 靜、筠二禪師(南唐), 1994年版’의 해당 쪽수를 의미함.

25) 이전 연구에서는 이를 ‘유사전치사용법’이라 명명했음. 자세한 내용은 ‘『搜神記』를 통

구조는 동일하지만 『祖堂集』에서는 '着' 동태조사용법도 74 회나 출현하는데, 이는 '着'이 아직 본래의 動詞性성분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동태조사로의 문법화도 동시에 상당 부분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1) V+着 / V+不+着

『祖堂集』에서는 12 회의 'V+着'구조와 5 회의 'V+不+着'를 볼 수 있다. 'V+着'은 목적어를 대동하지는 않는 구조로서 두 동사의 결합 후 전면동사 동작행위의 완성, 완료를 표현한다. 개개의 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면동사의 의미적 특성에 주목해 볼 수 있는데, '蓋覆', '佩', '睡', '釘', '懸掛' 등 대부분 동작이 완료된 후 상태의 고착 내지는 지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들임을 알 수 있다. 이전 시기에 '着'이 전면동사와는 독립적으로 연동구조를 형성하여 연속된 두 개의 동작을 표시하던 구조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着'의 문법화과정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전면동사와의 긴밀한 결합을 통해 모종의 동작행위가 발생하고, '着' 본래의 의미적 특성으로 인해 이 동작행위 이후의 '부착', '고착' 및 '지속'상태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V+着'연동구조에서 'V+着'술보구조로 '재분석(Reanalysis)'현상이 발생한 것이며, 주 동력은 전면동사의 의미적 특성으로 인하여 '着'의 문법적, 어휘적 특성이 '虛化' 내지 '弱化'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唐五代시기는 중국어 술보구조가 매우 활발히 사용되던 시기이며, 따라서 가능보어식도 매우 빈번히 출현하던 시기이다. 'V+不+着'는 'V+着' 결과보어식에서 파생된 가능보어식이며, 동작행위의 '불가능'을 나타낸다.

師云：“蓋覆着。”(104下)

뚜껑을 덮어라.

烈士之刀，斬釘截鐵，用則不無，不得佩着。(239上)

열사의 칼은 못을 끊고 무쇠를 자른다. 그러한 작용이 없지 않으니, 함부로 차지 말라.

해 본 '着'의 類似前置詞用法』 참조.

樹下坐, 忽底睡着, 覺了却歸院.(203下)  
 나무 밑에 앉아 잠들었다가 깨어나자 방으로 돌아갔다.  
 師曰: “釘釘着? 懸掛着?”(58下)  
 못으로 박혔습니까? 매달아 걸렸습니까?  
 師云: “公四大身若子長大, 萬卷何賺安着?”(290上)  
 공의 四대가 그 정도 크다고는 하나 어디에다 만 권의 책을 두셨습니까?  
 對云: “水洒不着.”(307下)  
 물을 뿌려도 묻지 않습니다.  
 卒摩搔不着, 記舉古話, 繫惑盲侶.(187上)  
 끝내 만져보지도 못하고 옛사람의 말만 기억하여 소경 무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翠微云: “燒亦燒不着, 供養亦一任供養.”(111上)  
 태워도 태워지지 않으니 공양하려면 또한 마음대로 공양하느니라.  
 路逢同道人, 楊眉省來賺, 踏不着, 多疑慮.(356下)  
 길에서 도가 같은 이 만나면 눈썹만 까딱해도 온 곳을 알게 되나니, 가보지 못하면 의심만 쌓이리라.  
 是你諸人着力, 須得越着始得; 若不越着, 喪身失命. ~~~ 師云: “失不失即置, 是你還越着也無?”  
 對曰: “若道越不着, 招人怪笑.” 師曰: “是你越着底事作摩生?” (214下, 215上)  
 여러분은 힘써 뒤쫓아야 한다. 만일 부지런히 뒤쫓지 않으면 몸과 목숨을 상하리라.  
 목숨을 잃고 안 잃는 것은 그만 두고 그대는 뒤쫓거나 하였는가?  
 만일 뒤쫓지 못했다 한다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그대가 뒤쫓은 일은 어떠한가?

## (2) V+着+O / V+不+着+(O)

‘V+着+O’는 3 회 출현하며, ‘V+不+着+O’는 단지 1 회의 예를 볼 수 있다. ‘V+着’ / ‘V+不+着’구조에 단순히 목적어가 결합된 형태로서, 목적어는 장소와 관련 없는 일반명사들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着’은 전면 동사와 깊은 관련이 있을뿐 후면의 목적어와는 통사적, 의미적 관련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식 술보구조 내의 ‘着’은 통사적으로도 부정부사 후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虛化정도가 심한 동태조사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동사

후면의 '着'은 그 의미가 아직 여실히 살아있어 동사보어로 사용된 것이며, 전면 동사의 동작행위가 미치는 대상에 대한 완성의 가능 여부를 표시한다. 동작 발생 후의 결과와 모종의 '부착'상태는 관련이 있으며, '着'의 의미지향은 동사로 향한다.

岳云: “如無燈夜把着枕头。”(105上)

마치 어두운 밤에 베개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不同塞塞人緊把着事不解傳得。(138上)

질식한 사람이 어떤 일을 굳이 간직하여 전할 줄도 모르는 것과는 같지 않으리라.

又云: “火即從你向, 不得燒着身。”(176上)

불이야 그대 마음대로 쪼이라마는 몸을 태우지는 말라.

師云: “分付不着人, 所以向你道, 不是你問底事, 兼不是你境界。”(273下)

남에게 전할 수 없다. 그러기에 그대에게 이르노니, 그대가 물을 일이 아니며, 그대의 경계도 아니니라.

### (3) V+着+N

'V+着+N(장소명사)'은 총 5 회 출현하는데, 'V+着' 후면에 오는 목적어는 장소명사이다. 이는 '着' 전치사 논의와 관련하여 '着'이 전면 동사와 관계가 있는지 후면의 장소명사와 결합하는지 통사적 특징을 판가름해야 할 중요한 구문으로 보아야 한다.

남북조시기부터 출현하기 시작한 극소수의 'V+着+O'는 이후 일반목적어를 대신하여 장소명사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着' 본래의 의미적 특성에서 기인하다. 『祖堂集』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아래 예문처럼 '南山', '脣齒', '地', '何賺' 등 일정한 장소를 표시하는 명사들이 'V+着' 뒤에 위치하게 된다. 만약 이 때의 '着'을 전치사로 가정해 본다면 해석상 매우 유려해져서 '在'나 '到'와 매우 유사한 성질을 갖는 성분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예 41)을 보면 '着'을 전치사로 볼 수 없다는 명백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萬卷何賺安着'에서 '何賺'는 '安着' 전면에 위치하게 되는데, 동일 문헌에서 동일한 의미표현이 예 54), 55)처럼 나타나게 된다. 이는 'V+着+N'의 통사적 성질을 명확히 보여주는 실례로서 '着'이 전치사가

아니라 전면 동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결과보어임을 여실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暉和尚頌曰：“雪峯養得一條蛇，寄着南山意若何？不是尋常毒惡物，叅玄須得會先施。”(149下)

설봉이 뱀을 한 마리 길러서 남산에 숨겨 둔 뜻이 무엇이던가?

師曰：“咄！這饒舌沙彌猶掛着唇齒在。”(91下)

어허! 저 말 많은 사미가 아직도 입술과 이에 걸려 있도다.

學曰：“與摩則來者無依。”師云：“依則榻着地，不依則一任東西。”(335下)

의지하려면 방석을 땅에 놓아라. 의지하지 않으려면 마음대로 동서로 헤매라.

“龜毛拂子，兔角拄杖，藏着何賺？”(106下)

거북이 털 털이개와 토끼 뿔 지팡이를 어디에다 감춰 두는가?

師曰：“不賞翫者得。”僧曰：“安着何賺？”(96下)

구경하지 않는 이가 얻느니라. 어디에다 놓아 듭니까?

이상 예시한 ‘着’구조는 단지 결과보어로 사용된 동사일 가능성이 크다. 남북조시기부터 이미 전치사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기존의 여러 관점들은 中國語史 전체의 문법체계와 각 문헌에서의 분포상황을 고려해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수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이와 관련한 문법화의 動因, 機制, 變遷과정, 그리고 후대의 문헌 속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의문점 등에 대한 연구는 보다 면밀한 조사 분석과 동시대 및 후대의 기타 口語자료와의 종합적인 비교연구를 통해서야만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着’전면 동사의 의미특질에 따라 ‘着’의 품사 성질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보도록 한다. 前章에서 확립한 근거대로 ‘着’에 대한 의미소 분석을 시행하여 전면 동사의 의미가 후면의 ‘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해 보도록 한다.

① [+附着, +持續]:

‘V+着(+O)’구조에서 [+附着, +持續]의 의미특성을 가진 동사는 ‘蓋覆’, ‘佩’, ‘睡’, ‘釘’, ‘懸挂’, ‘安’, ‘把’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공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즉 ‘사물에 부착되다’의 의미로서 [+附着, +持續]의 의미향을 가지고



있으며, 'V+着'가 장소사를 거느리면 이 때의 '着'은 모두 보어로 간주해야 한다. 이들 동사는 그 동작 자체로서 본래 '부착'상태를 도출해낼 수 있으며 '지속'의 특성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는 초기의 병렬구조에서 변해 온 것으로서 '着'은 동사보어로서 '부착'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동작의 결과를 표시한다. 즉 동작행위가 이미 목적에 달했고 '부착'의 결과를 발생시켰으며, 목적어는 '부착'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나타낸다.

한편, 주목할만한 것은 상기 예 46)에서 '不趁着'과 '趁着不'이 동시에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sup>26)</sup>, 일반적으로 '着'과 결합하는 동사의 전면에 부정사 '不'를 사용한 '不+V+着'구조는 宋元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출현한다<sup>27)</sup>. 그러나 『祖堂集』에서는 이미 3 개의 '不+V+着' 용례를 관찰할 수 있다. '不趁着'과 '趁着不'이 하나의 어구 안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것은 매우 재미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단지 두 가지의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첫째, '不趁着'과 '趁着不'이 표시하는 의미가 서로 다르거나; 둘째, '趁着' 후면의 '着'은 동작행위 완성 후의 結果相을 표시하며, 부정부사 '不'이 'V+着' 전체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着'이 動態助詞로의 文法化가 시작되는 징표의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附着, -持續]:

『祖堂集』에서 '着'과 결합하는 [+附着, -持續] 의미항의 동사는 '洒', '搔', '趁', '飲', '燒', '踏' 등이 있다. 하나의 동사가 '附着' 의미항은 있으면서 '持續'의 의미항이 없다면 이는 논리적인 모순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附着, -持續]動詞+着+O'구조 중의 '着'이 비록 동작 자체의 '附着'의 의미는 없지만 이들 동사와 결합하면, 그 동작이 완료된 후에 만들

26) 3. 動態助詞 '着'에서는 同문헌에 출현하는 '不避着', '不屈着'도 볼 수 있다. 부정사 '不'는 동사 '避'와 '屈' 앞에 위치하며, 'V+着' 뒤에 대상목적어를 거느린다. 따라서 이 때의 '着'은 動態助詞로서 동작 완성 이후의 結果相을 표시한다.

27) 待道是鄭觀音, 不抱着玉琵琶.(宣和遺事·亨集)  
那兩個舅舅李洪信, 李洪義全不秋采着知遠.(『五代史平話·漢史』)

어지는 결과에 모종의 ‘부착’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때의 ‘着’은 모두 동작행위 결과 후의 상태를 표시하는 결과보어로 간주한다.

### 3. 動態助詞 ‘着’

『祖堂集』‘V+着(+O)’구조에서 전면의 동사는 이미 본래의 의미적 제한을 상실하여 ‘非附着’의미의 동사도 자유롭게 ‘着’과 결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의 영향으로 ‘V+着’ 뒤에는 각종 다양한 의미의 일반목적어가 올 수 있게 되었다. 蔣紹愚(1994)는 ‘V+着+O’구조에서 목적어의 성질이 장소명사에서 일반목적어로 변하는 현상이 ‘着’의 문법성질 변화에 중요한 질적 변화를 일으켜 動詞補語에서 動態助詞로 변한다고 했다<sup>28)</sup>. 예를 들면: ‘藏着瓶中→藏着君來憂性命’.

그러나 『祖堂集』에서는 ‘藏着瓶中’과 같은 ‘V+着+N+L’구조를 단 하나의 예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과거 학자들이 주장하던 전치사 ‘着’은 ‘V+着+N+L’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문법화한 것으로 보는데, 여러 시기에 걸쳐 다양한 문법현상이 거의 모두 출현하는 『祖堂集』에 이러한 구조를 단 한 개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着’의 문법화과정 중 ‘동사에서 전치사’로 변화한다는 중요한 문법화 경로를 부인해도 좋을 명확한 실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③ [—附着, +持續]:

‘持續態’를 표현하는 동태조사 ‘着’은 근대중국어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대략 唐代에 탄생한 것으로 본다. 『祖堂集』에서 지속표시 動態助詞 ‘着’은 비교적 많이 보인다. ‘持續動詞+着’은 동작행위 본래의 지속을 표현하거나 동작 자체는 지속표현을 못 하지만 동작행위 완료 후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며, 이는 결과보어였던 ‘着’에서 전면 동사의 의미특성 변화에 따라 상태의 지속을 표현하는 ‘着’ 문법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8) 『近代漢語研究概況』, 168-169쪽.

宋代 이후에 출현한 진행표시 동태조사 '着'에 관하여 『祖堂集』 중에는 進行態인 '動1+着+動2(+O)' 구조는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祖堂集』 중에는 進行態 動態助詞는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다.

아래 'V+着', 'V+着+O' 두 종류 구조에서 전면 동사는 모두 持續동사로서 [-附着, +持續]의 의미적 특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記', '守', '依', '合', '昧', '汚', '慙', '怪', '捉', '礙', '憶', '添', '定', '思', '認' 등이 있으며, 이 구조 내의 '着'은 이런 동사들과 결합한 후에 동작상태의 지속을 표시한다. 아래의 예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초기 동사의 의미적 제한은 이미 사라졌고 각종 非附着 의미의 동사들이 모두 '着' 전면에 나타나게 되었다. 'V+着' 후면의 목적어도 이미 장소사가 아닌 일반목적어로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어떤 것은 동사 본래의 지속을 표현하는데, 예로 '記', '認', '思', '守', '依', '慙', '怪', '憶' 등은 주로 인간의 심리, 의식과 관련있는 동사들이다. 또 어떤 것은 동작 완료 후에 발생하는 지속성 결과를 표시하는데, 예로 '碍', '合', '定', '昧', '添', '汚', '捉' 등이 있다.

“古人道：‘若記着一句，論劫作野狐精。’未審古人意如何？”(227下)

옛사람이 말하기를: 한 구절의 말을 기억했다가 도리어 들여우가 되었다 하였으니, 옛사람의 뜻이 무엇입니까?

鳳池云：“守着合頭，則出身無路。”(119上)

머리를 맞대고 지키고 있으니 몸을 빼낼 길이 없다.

本只爲生死忙忙，法法依着識性，無有自在分。(132下)

단지 생사에 분주하여 법마다에 집착되어서 자유로워질 소질이 전혀 없나니.

便問師：“這裏合着什麼字？”(192上)

이 속에다 무슨 글자를 놓아야 되겠는가?

問：“如何是招慶提宗之句？”云：“不得昧着招慶。”(244下)

초경을 어둡게 하지 못하느니라.

“如今須符他正叵，不得汚着，作摩生道？”(129上)

지금 그 정인에 부합되면서 더럽히지도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일러야 되겠는가?

法才極瞻，大耳<sup>29)</sup>慙着。(65下)

법 재주가 매우 드높으셔서, 대이가 부끄러움을 당했다.

福先自代云：“汝向後不得怪着我。”(129下)

29) ‘大耳’은 人名.

복선이 스스로 대신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이 뒤에 나를 괴이하게 여기지 말라.  
僧云: “忽被捉着時作摩生?” (315下)

갑자기 붙들릴 때엔 어찌합니까?

師有時上堂云: “盡令去也, 如存若亡; 私曲將來, 礙着老學. 与摩相告報. 還解笑得我摩?” (218上)

법령을 다하면 있는듯 하되 없으나 사사롭고 급게 하면 장애를 이룬다. 노승이...

師云: “苦殺人! 老漢未造人在, 適來忽然憶着菩提涅槃, 所以与摩唾.” (273上)

사람을 몹시도 괴롭히는구나! 내가 사람이 되지 못해서 조금 전에 갑자기 보리와 열반이 생각이 났었느니라. 그러기에 침을 뱉었느니라.

若有人將此相來問, 某字邊添着人字對之. (374上)

어떤 사람이 이 모습의 뜻을 묻는다면 아무 쪽에나 人字를 붙여서 대답하리라.

仰山云: “人前受持聲教, 祇對別人, 卽似背後措定着渠, 自己照用賺, 業性亦不識.” (346上)

남의 앞에서는 가르침을 받아 들이나, 다른 사람을 대하면 마치 등 뒤와 같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비추어 밝히는 곳을 가리어 보면 업성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天寒宜曝日, 歸堂一食傾, 思着未生時, 宜然任他清. (357上)

날씨가 추우면 햇볕을 쬐이고 방에 돌아와서는 한 술의 밥을 먹는다. 태어나기 이전의 일을 생각하고 의연히 그 성정에 맡기라.

曹山曰: “什麼賺是他知有賺?” 對曰: “爲不如山中事, 便認着文殊.” (107下)

어느 곳이 그가 알음알이가 있는 곳인가? 산중의 일답지 않게 문수를 굳이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④[-附着, -持續]:

‘非持續動詞+着’은 출현빈도가 상당히 높고 ‘着’과 결합하는 동사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이 종류의 ‘着’은 『祖堂集』에 총 21 개 53 회 출현한다. ‘說’, ‘道’, ‘問’, ‘避’, ‘屈’, ‘遇’, ‘指點’, ‘舉’, ‘動’, ‘傷’, ‘勳’, ‘撩’, ‘踢’, ‘觸’, ‘痾’, ‘逢’, ‘衝’, ‘投’, ‘觸’, ‘損’ 등의 非持續동사는 [-附着, -持續]의 의미특징을 갖는다. 동사의 이러한 의미특징을 통해 볼 때, 비록 모종의 부착의미를 약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동작 본래의 持續性은 갖고 있지 못한 瞬間性 동사들이 대부분이다. 아래 예들 중의 ‘着’은 모두 이미 高度로 虛化된 持續態 표시 동태조사이며, 따라서 단지 동작상태의 지속만을 표시하고, 이는 일종의 부가적 의미를 나타낸다.

師曰: “兄弟也莫說, 說着這個事, 損着說底人.”(101上)  
 형제들이여, 말하지 말라. 그 일을 말하면 말하는 사람을 해치는 것이니라.  
 師云: “不得道着老僧.”(134上)  
 노승이라고 말하지 말라.  
 師云: “問着宗門中事, 有什摩難道?” 恰問着老僧鼻孔.(366上)  
 종문 안의 일을 묻는다면 대답치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랴? 노승의 콧구멍에 물어보라.  
 今夜某甲不避着恥, 与諸尊者共談.”(229上)  
 오늘 밤 내가 여러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야기를 하리라.  
 洞山云: “若實如此, 亦不屈着人.”(212下)  
 만일 진실로 그렇기만 하다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니라.  
 只如達摩与摩道, 遇着本色行脚人, 選得了摩?(202下)  
 달마의 그런 말이 본격적인 행각인을 만난다면 알게 되겠는가?  
 師問道吾: “老兄家風作摩生?” 吾曰: “教汝指點着, 堪作什摩?”(99下)  
 그대에게 점검이나 받아서 무엇하겠소?  
 師曰舉着, 云: “他个則与摩, 別是个道理, 只今作摩生道則得?”(201下)  
 선사께서 이 이야기를 전해듣고 말했다.  
 外明瑩, 內含虛, 內外玲瓏若寶珠.正在澄波看似有, 及乎動着又如無.(174下)  
 잔잔한 파도에서는 있는 듯이 보이다가 움직임에 이르러서는 다시 없는 것 같다.  
 一向隨他走, 又成我不是.設爾不与摩, 傷着他牽匱.(195上)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의 속박에 피해를 입는다.  
 問: “如何是納僧氣息?” 師云: “還會動着你也無?”(180上)  
 어떤 것이 납승의 호흡입니까? 일찌기 그대에게 풍긴 적이 있었던가?  
 云: “灼然撩着便去, 誰有你刁刁?”(183下)  
 뚜렷하게 흔들어 버리고 훌쩍 떠나면 누가 그대에게 칼을 겨누겠는가?  
 恰去到嶺上, 踢着石頭, 忽然大悟.  
 고개 마루턱을 지나다가 돌부리를 차고 크게 깨달았다.  
 “又須道取栢樹子, 不得觸着. 和尚如何道?”(215下)  
 또 속히 일러야 합니다마는 뜰 앞의 잣나무를 건드리지 말고 화상께서는 어떻게 이르시겠습니까?  
 師云: “專甲終不自誑.” 德山呵云: “他向後老漢頭上癩着.”(137上)  
 저 친구가 뒷날 내 머리 위에다 똥을 갈길 것이다.  
 但知在裏許亂走, 逢着人便問: ‘阿那个是我?’(142下)  
 다만 그 속에서 어지러이 설치다가 사람을 만나면 문득 묻되: 어느 것이 나인가?  
 勸君嶮賺好看蛇, 衝着臨時爭奈何.(149下)

그대들께 권하노니 험악한 곳을 더 조심하여라. 물리면 즉석에선 어찌할 수 없으리.

師云: “是伊解藏身.” 進曰: “忽然投着時, 作摩生喫拳喫擗?” (153下)

갑자기 투항했을 때엔 어찌합니까? 주먹질을 당하고 발길질을 당하느니라.

莫嫌古德夙根, 懸鐸相似, 觸着則應, 是与摩根器始得. (231下)

고덕들의 숙세의 근기가 방울을 달아 놓은 것 같아서 건드리기만 하면 곧 응하던 일을 수상하게 여기지 말라. 응당 그러한 근기라야 비로소 된다.

謂衆曰: “輒不得損着者个.” (291上)

대중에게 말하기를 “아무도 이것을 건드리지 말라” 하였다.

이상으로 ‘着’ 전면 동사에 대한 의미소 분석을 통하여 ‘着’의 품사특성을 고찰해 보았다. 남북조시기의 문헌과 달리 『祖堂集』에서의 ‘着’ 관련 구조는 통사구조상의 획일적 분류를 통해서는 ‘着’ 본연의 품사성질을 분석해내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같은 통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면 동사의 의미적 갈래에 따라 ‘着’의 문법범주가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이며, 더구나 목적어조차도 장소명사 대신 매우 다양한 의미의 일반목적어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더욱 분석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의미소 분석법은 분석자의 관점에 따라 때로는 각 의미항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唐五代시기처럼 동일한 통사구조 내에서 실로 다양한 동사들이 출현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지만, 이는 한편으로 이 시기 ‘着’구조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VI. 결론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남북조부터 당말에 이르는 근대중국어시기의 ‘着’ 관련 구조를 살펴보고, ‘着’의 문법화과정 및 전치사용법의 존재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순수동사에서 결과보어로, 다시 동태조사로 변화하는 과정은 기존 학계의 이론을 적용해볼 때 큰 변화를 찾을 수는 없었고, 다만 의미소분석을 통

한 고찰에서 '着' 전면 동사의 의미 변화가 '着'의 품사성질을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着'의 품사성질이 변함에 따라 후면에 수반되는 목적어의 성질도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이렇게 전후 성분의 상호 영향으로 인하여 '着'의 문법범주 특성이 더욱 다양해짐을 발견하였다.

또한 남북조부터 『祖堂集』시기에 이르기까지 전치사 '着'은 존재하지 않음을 여러 통사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증명해 보였다. 근대중국어시기는 '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요 동사들의 文法化과정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들어 動詞의 助詞化, 動詞의 前置詞化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로 이미 여러 학자들의 저작이 있으나 각자 사용한 연구자료가 전면적이지 못하거나 제반 문법현상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이 충분치 못한 단점이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근대중국어 연구의 역사가 짧은 점이나 연구 자체가 지니고 있는 난이도가 큰 점 혹은 해당 시기 문헌자료의 방대함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언어현상에 대한 안일하고 획일적인 연구자세와 문맥 해석에 기반한 관점이 보다 큰 문제였다고 여겨진다.

'着' 연구에 관해서 중국 학계는 동사, 조사 용법과 함께 전치사의 존재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나, 본고는 이들과 논점을 달리하여 여러 문헌들에 대한 실증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반박결론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중국어사 연구에 있어서 의미론에 치중한 방법론이 연구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가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는 연구자들의 관점과 방법론의 문제를 새롭게 인식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參考文獻

- 靜·筠二禪師(南唐/1981/1983):『祖堂集』,(共二冊,全譯本),釋月云譯,東國大學譯經院。
- 靜·筠二禪師(南唐/1994):『祖堂集』,上海古籍出版社
- 靜·筠編撰(南唐/1996):『祖堂集』,吳福祥·顧之川點校,岳麓書社
- 賈思勰(北魏),『齊民要術』,團結出版社,1996
- 干寶(東晉),『搜神記』,貴州:貴州人民出版社,1991
- 劉義慶(南朝·宋),『世說新語』,上海古籍出版社,2007
- 王力,『漢語史稿』,北京:中華書局,1980
- 太田辰夫,『中國語歷史文法』,北京:北京大學出版社,1987
- 呂叔湘,「釋景德傳燈錄中‘在’、‘着’二助詞」,1940
- 梅祖麟,「現代方言里虛詞‘著’字三種用法的來源」,中國語言學報,1989
- 蔣紹愚,『近代漢語研究概要』,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5
- 吳福祥,蔣冀騁,『近代漢語綱要』,湖南:湖南教育出版社,1997
- 吳福祥,『敦煌變文語法研究』,湖南:岳麓書社,1996
- ,「關於語法化的單向性問題」,當代語言學,2003
- 林永澤,「齊民要術‘著’小考」,中國學研究 제46집,中國學研究會,2008
- ,「搜神記를 통해 본 ‘着’의 類似前置詞용법」,中國研究 제 집,中國研究所,2009
- 趙金銘,「敦煌變文中所見的‘了’和‘着」」,中國語文,1979
- 曹廣順,「祖堂集中的‘底(地)’、‘卻(了)’、‘著」」,中國語文,1986
- ,『近代漢語助詞』,北京:語文出版社,1995
- 李訥,石毓智,「論漢語體標記誕生的機制」,中國語文,1997
- 費春元,「說‘着」」,語文研究,1992-2
- 馬貝加,『近代漢語介詞』,北京:中華書局,2002
- 劉堅等,『近代漢語虛詞研究』,北京:語文出版社,1992
- 張楨,『漢語介詞詞組詞序的歷史演變』,北京: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2002



- 林新年, 『祖堂集的動態助詞研究』, 上海: 上海三聯書店, 2006  
陳寶勤, 「試論着的語法化過程」, 語文研究, 2006-1

<Abstract>

Research on the Grammaticalization of the 'Zhuo' in Early Modern Chinese

Leem, YoungTaek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diversely the usage of 'Zhuo' was embodied in Shishuoxinyu & Zutangji, which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hinese colloquial texts in the Early Modern Chinese, and whether the existence of the use of prepositions could be acknowledged at that time. Accordingly, the study attempts to describe the categorical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multiple grammar usage among contemporary wording systems shown in 'Zhuo' through the comprehensive survey of Shishuoxinyu & Zutangji and to review the opinions of existing scholarship. Furthermore, it examines various features in the process of 'Zhuo' grammar usage through the empirical research, analysis, comparison and statistics using the relevant literary documents of that period and later times.

Key Words : Early Modern Chinese, Zhuo, Grammaticalization, Shishuoxinyu, Zutangji, Preposition

투 고 일 : 2012. 9. 14. / 심 사 일 : 2012. 9. 19. ~ 2012. 10. 7. / 게재확정일 : 2012. 10. 10.